



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30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9.(수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서승리 (2100-2993)

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

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

□ (제도) 중·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,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'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① (민간중금리 대출) ①신용 하위 50% 차주에게 실행되고,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*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,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('21.4월 발표, '22.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)

* (은행) 6.5% (상호금융) 8.5% (카드) 11.0% (캐피탈) 14.0% (저축은행)16.0%

② (사잇돌대출)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, 은행·상호금융·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.

□ (규모)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왔습니다.

○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' 16년 1.3조원 → ' 21년 21.5조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.

○ ' 22.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.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.2조원입니다. (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)

<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(단위 : 조원) >

연도	'16	'17	'18	'19	'20	'21	'22.1Q
중금리대출 공급액	1.3	3.7	6.0	8.3	13.5	21.5	6.2

- (평가)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,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·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2 |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

-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(0.5%→1.75%) 등에 따라 은행,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,
- 금리 상승으로 중·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, 금융회사가 중·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3 |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

- (방식) **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**합니다.(매반기)
-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(은행 조달금리) 금리변경 시점*의 전전월 기준 **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**
 - * '22.7.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'22.5월을 기준으로 함
 - (상호금융·저축은행 조달금리)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**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**

- (카드·캐피탈 조달금리)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(카드 AA, 캐피탈 A-, 3년) 발행금리의 가중평균*

*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(20%)을 가중치로 사용
→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(80%) /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(20%)

< 유사사례 > 햇살론(상호금융, 저축은행) 금리결정방식

- 금리결정방식 : 조달금리(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) + 스프레드
 -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

- (한도)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.

-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, 상호금융, 카드 업권은 “+2%p”, 캐피탈, 저축은행 업권은 “+1.5%p” 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.

* 금리상한 한도 : (은행)8.5% (상호금융)10.5% (카드)13.0% (캐피탈)15.5% (저축은행)17.5%

- (기준시점)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’ 21.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.

- ’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·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.

⇒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’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’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>

시점	은행	상호금융	카드	캐피탈	저축은행
’22.상반기	6.5%	8.5%	11.0%	14.0%	16.0%
’21.12월 대비 ’22.5월 조달금리 변동폭	(+0.29%p)	(+0.51%p)	(+0.29%p)	(+0.45%p)	(+0.30%p)
’22.하반기	6.79%	9.01%	11.29%	14.45%	16.3%

4

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(기대효과)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,
-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·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(향후계획) ' 22.7.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 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.
-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·여전·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(' 22.下)

<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>

업권	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
저축은행	■(규제) 영업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(40~50%) 이상으로 유지 ■(인센티브)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%로 인정
여전사	■(규제)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%이하로 유지 ■(인센티브) 중금리 대출은 80%로 축소 반영
신협	■(규제)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/3 이상 ■(인센티브)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%로 확대 인정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90)
	중소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서승리 (02-2100-2993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	책임자	부국장	김형원 (02-3145-8022)
		담당자	팀 장	황준하 (02-3145-8050)
<공동>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용걸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문재희 (02-3145-6773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준환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이성희 (02-3145-7552)
<공동>	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	책임자	국 장	권화중 (02-3145-8070)
		담당자	팀 장	이건필 (02-3145-8083)